

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엄명용* · 김효순**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44세에 이르는 2,678명의 미혼 남녀(남 1,425명, 여 1,253명)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 성역할 태도 및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등을 성별 및 교육정도에 따라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남녀들의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혼 남녀의 성역할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은 미혼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둘째,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과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성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를 더 찬성했으며, 전일제 일 보다 시간제 일을 선호하는 미혼자들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 방안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남편의 자녀 돌봄 능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2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가 1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였다. 셋째,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고자 하는 미혼 남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넷째, 저출산 이유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취업여성의 증가'였다.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기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로 전일제 일하는 것을 원하는 미혼자들에게서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가정 양립방안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핵심단어: 일·가정 양립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myum@skku.edu

** 세종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교신기자) | ner9657@sjcu.ac.kr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인구대체 수준인 합계출산율 2.1에 도달한 후 계속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과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1.19명과 1.09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2010년 현재의 합계출산율은 1.226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우리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상황에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지금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합계출산율 1.2명(2010년)이 유지될 경우, 2100년 남한의 인구는 2468만 명으로 2010년 인구(4887만 명)의 절반이 될 것이며, 2500년이 되면 인구가 올해의 0.7%에 불과한 33만 명으로 축소되어 사실상 민족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의 변천은 미래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인구의 재생산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용 증가, 국가경쟁력 쇠퇴,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 및 사회보장, 노동시장, 아동의 양육환경, 성별불균형의 심화와 지속, 노인과 장애인 보호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예상되고 있다(김승권·최병호, 2002; 방영이, 2010; 유계숙·한지숙·안은진·최효진, 2007; 이삼식·조남훈, 2000; 정성호, 2010; 정혜은, 2008).

지금까지 저출산의 원인을 집어내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이뤄져 왔다. 논의들 중에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부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양육 및 교육비, 부부 삶의 질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 가정 내 성역할 분담, 여성의 자아실현 경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요인들 간 관계를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제시한 결과는 많지 않았다. 특히 전국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저출산 관련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 연구는 많지 않다. 미래의 출산 세대는 미혼 남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저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결혼 후 일과 가정을 동시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남녀의 성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출산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미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김사현, 2009; 김우영, 2007; 박정윤·장영은, 2011; 이삼식, 2007; 이윤석, 2010; 홍승아, 2008; 최숙희·김정우, 2006), 이러한 논의 가운데 공통적

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양육문제와 가사부담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과 가족의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¹⁾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출산과 직장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여성주의저널 일다, 2008.9.3; 장지연, 2005). 국내외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공선희, 2010; 김소영·김선미·이기영, 2011; 김진희·한경혜, 2002)는 주로 기혼자나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가족 안에서 부부 간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성역할 태도가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김태현, 2005; 윤경자, 2010; 이병렬, 2003; 이삼식, 2007; 이인숙, 2005; 진미정·정혜은, 201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사 활동에 있어 부부 간 역할과 책임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을 때 가정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출산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삼식·신인철·조남훈, 2005; 손승영, 2005). 지금까지 성역할 태도 관련 연구들은 주로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만족도나(최규련, 1984)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조미환, 1996; 차성란, 1998)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태도가 향후 가정을 가졌을 때의 일·가정 양립방안 그리고 출산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향후 이들의 출산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 부부 간 독립적 생활을 누리려는 생각,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이혼 부부의 증가현상, 취업여성의 증가 등이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저출산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과 앞서 살펴본 일·가족 양립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등의 변수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향후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임연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1) 대표적인 지원정책으로는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노동시간정책 등의 제도적 지원이 있다. 제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하여 남녀 간에 보다 평등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도 포함된다(홍승아·이미화·김영란·유계숙·이영미·이연정·이체로, 2009).

문제, 성역할 태도,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본 연구는 출산율저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부부 성역할 태도, 일·가정 양립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출산 관련 정책 개입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문헌 연구

1. 일·가정 양립,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출산

일·가정 양립은 일-가정균형, 일-가족갈등, 일-생활균형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사용되고 있다. 클라크(Clark, 2001)는 일과 가족의 균형상태란 가족과 일터에서 역할로 인한 갈등이 거의 없이 두 영역에서의 생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짐으로써 오는 만족스런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홍승아(2008)는 일·가정 양립은 일과 가정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두 가지 영역의 생활이 개인에게 있어서 똑같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등한 가치를 규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양립”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방안은 과거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 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성별분업의 벽을 허물고, 일과 가정 양자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조화롭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이란 시간제와 전일제의 일 요인과 자녀수 간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가정 간 갈등은 일에 몰두하게 되면 가정 일에 소홀하게 되고, 가정 일에 몰두하게 되면 일에 대한 부분이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다(Greenhaus, Colins and Shaw, 2003). 일·가정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프레드릭슨-골드슨과 샤라크(Fredricson-Goldsen and Scharlach, 200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가정 갈등은 주로 맞벌이 부부에게 많이 발생하는 갈등으로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지원부족, 과중한 업무, 비탄력적인 업무 스케줄, 야근 및 연장업무 등을 포함하는 직장 특성과 배우자의 지원 및 가사분담 정도,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외부지원, 자녀의 나이 등을 포함하는 가정영역의 특성 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찌와과 바스(Grzywacz and Bass, 2003)는 근로자의 연령, 성별, 직장 내 노동시간, 결혼여부, 어린자녀 유무 등이 일·가정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영금(2005)은 보살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를 둔 20대 및 30대 연령의 근로자로서 가사 노동 시간이 긴 상태에서 가족들로부터 행동·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가장 큰 일·가정 갈등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지숙(2007)은 기혼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 및 일·가정의 갈등과 축진을 살펴보면서 일·가정 갈등은 모든 근로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였다.

부부 간의 성역할 태도는 가정 내에서 배우자 간 공평하지 못한 역할 분담으로 이어져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요인 변수로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김금수, 2003; 김난주·권태희, 2009; 양소남·신창식, 2011; 은기수, 2009). 부부 성역할 태도란 사회·문화적 전통 속에서 성과 연결되어 있는 결혼 및 가족에서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차성란, 1998). 이러한 부부 성역할 태도는 가족을 통해 전이된다(Chun, Chang and Chang, 2004). 원가족의 문화는 한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최초의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부스와 아마토(Booth and Amato, 2004)는 부모가 비전통적인 성역할과 태도를 가진 경우 자녀들도 비전통적인 성역할을 따른다고 하였다. 가족가치관으로서의 부부 성역할 태도와 관련하여 호크차일드(Hochschild, 2001)는 변화한 여성과 변하지 않는 직장사회 또는 남성 간의 긴장현상을 '지연된 혁명'이라고 했다. 이미 산업화 초기 삶의 방식과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적응한 남성과 뒤늦게 산업노동자가 된 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성의 존재는 남녀관계, 특히 부부관계에 혼란과 갈등을 만드는데, 혁명이 지연된 사회의 맞벌이 가정에서는 가사를 분담하는 남자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일·가정 양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이며(김선미, 2005; 윤소영·김하늬·고선강, 2009; 조희금·서지원, 2009), 이러한 어려움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2003)에서 여성의 직장생활로 인한 일·가정 양립 문제가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영향을 미친다'가 60.2%, '크게 영향을 미친다'가 28.4%로 나타나 88.6%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합한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이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때, 한국사회와 같이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힘든 상황에서 자녀 수의 증가는 부부 간의 성 분업적 역할을 강화시켜, 일하기 원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 곤란의 주된 이유는 자녀 양육문

제와 가사부담이며, 비취업 여성의 대다수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 취업을 하길 원하지만 일·가정 양립의 곤란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5). 따라서 일과 가정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이 부족한 경우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못해 출산수준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저출산 원인

한국사회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사교육을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소득 및 고용불안정, 주거 불안정, 연령, 교육수준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볼 때,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2009)에 따르면 학부모의 70%가량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부담요인 중 58%가 각종 과외비, 39%가 학교납입금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자녀양육비는 149만원으로 1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350만원의 58%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09). 이들 자료는 자녀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출산율 감소현상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장혜경, 2005) 뒷받침하는 것이다. 동일 선상에서 아토(Atoh, 1998)는 교육비 증가가 부모에게 지우는 부담이 크므로 부부는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여 출산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미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부부의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빌러리와 코홀러(Billari and Kohler, 2004)에 의하면 청년시절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경제적 전망은 결혼 적령기 청년들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늦은 나이까지 머물게 하여 혼인연령을 상승시키고 이것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주거비 부담 또한 청년들의 결혼 연령을 연장시키고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혜경(2005)은 주거비 부담이 비교적 낮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출산율이 높은 반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을 통해 주거 안정성 역시 출산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수준 역시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츠(Beets, 1997)는 높은 교육 수준이 여성의 능력과 경제 활동 기회를 고양시켜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결혼에 대한 여성의 선호도를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혼을 했어도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결혼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 후 일정 기간 내내 첫째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Nomaguchi, 2006). 국내의 윤수빈의 연구(2010)에서 출산력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향상, 교육수준 향상 및 결혼연령의 상승 등의 변수였다. 김혜순의 연구(1982)에서도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게 나타나 여성의 자아실현 경향과 출산율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살펴본 부부 간 성역할 규범 역시 출산율 저하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과거에 남성은 가계의 소득을 책임지는 주 부양자로서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여성은 일생의 많은 부분을 임신, 출산, 수유 등 육아로 보내는 성별분업을 당연시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 성역할 규범은 느리게 변화하여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에 따른 갈등 상황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노력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안은진·박다운·한지숙, 2009),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현상이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이슈와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출산율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아울러 이러한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이 미혼 남녀들의 교육정도, 성별, 성역할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미혼 남녀들이 향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교육정도와 성별에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는 미래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혼 남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방안이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는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지원에 있어 남녀의 역할 정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들이 인식하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남녀 성별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 방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와 일·가정 양립 방안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해 미혼 남녀들이 동의하는 정도가 성별에 따라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 방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결과는 향후 출산 장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제1차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a)를 사용하였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의 주요 내용은 만 20~44세 기혼여성 및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양육관련 행태와 기존정책 만족도 및 새로운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응답자 중 만 20~44세의 미혼 남녀 2,67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 성별,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저출산 관련 변수들 간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했다.

2. 분석 변수

1) 인구사회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교육정도, 연령 등이다. 교육정도는 “1=중졸이하,” “2=고등학교 졸업,” “3=4년제 미만 대학 졸업,” “4=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등의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2)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²⁾

일 요인은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하였으며 가정요인은 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혼 남녀들의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은 일 요인(시간제 및 전일제)과 자녀별 요인(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이상)을 교차, 조합하여 구분되었으며 다음의 6가지 경우 즉, 자녀 없이 전일제 근무, 자녀 없이 시간제 근무, 자녀 1명만 두고 전일제 근무, 자녀 1명만 두고

2)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은 이하 일·가정 양립방안으로 표기.

시간제 근무, 자녀 2명 이상 두고 전일제 근무, 자녀 2명 이상 두고 시간제 근무 등으로 나누어 졌다. 일 요인 중 시간제 사례는 1,402(52.4%), 전일제는 1,276(47.6%)사례였다. 가정 요인인 자녀의 경우 무자녀는 290사례(10.8%), 1 자녀는 933사례(34.8%), 두 자녀 이상은 1,455사례(54.4%)였다. 미혼 남녀들의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자녀 2명 이상을 두고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n=884, 33.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을 두고 전일제 근무’(21.3%), ‘자녀 1명만 두고 전일제 근무’(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미혼 남녀의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

	빈도	백분률	누적 백분률
자녀 없이 전일제 근무	204	7.6	7.6
자녀 없이 시간제 근무	86	3.2	10.8
자녀 1명만 두고_전일제 근무	501	18.7	29.5
자녀 1명만 두고_시간제 근무	432	16.1	45.7
자녀 2명 이상 두고_전일제 근무	571	21.3	67.0
자녀 2명 이상 두고_시간제 근무	884	33.0	100.0
합계	2678	100.0	

3) 부부 성역할 태도

부부의 성역할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는 “남편은 직장을 갖고 아내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등 이었다. 이러한 부부 성역할 태도에 대해 “1=전혀 찬성하지 않는다”~“4=전적으로 찬성한다”의 리커트 타입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견해에 대한 찬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1=매우 심각,” “4=전혀 심각하지 않거나 모름”의 형태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심각”으로 응답한 경우는 23.2%(622명)로 가장 높았으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 10.9%, “다소 심각하다” 5.93%, “전혀 심각하지 않거나 모름”은 5.8%로 나타났다.

5)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저출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취업여성의 증가,”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부담,”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의식 탓” 등으로 하였다. 이에 대해 ‘1=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에서 ‘4=전적으로 찬성한다’의 리커트 타입으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저출산의 이유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미혼 남녀들의 동의 정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과 이들 변수들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변량분석을 사용했다. 일변량분석에 대한 사후다중비교를 위해서는 Turkey HSD 방법을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425(명)	53.2(%)
	여	1,253(명)	46.8(%)
연령	남	27.27(세)	평균연령
	여	25.79(세)	25.79(세)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2(명)	1.19(%)
	고등학교 졸업	547(명)	20.43(%)
	대학(4년제 미만)졸업	631(명)	23.56(%)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1468(명)	54.81(%)

분석에 투입된 사례는 미혼 남녀 2,678명이었다. 분석 대상자 2,678명 중 남자가 1,425명(53.2%), 여자가 1,253명(46.8%)이었다. 미혼 남녀의 평균 만 연령은 26.58세(표준편차=5.446)였으며, 남자 미혼자의 평균 만 연령은 27.27세(표준편차=5.649), 여자 미혼자의 평균 만 연령은 25.79세(표준편차=5.094)였다. 조사 대상 미혼자 가구원의 교육정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4년제) 재학 내지는 졸업자가 가장 높은 빈도(52.5%)를 차지했으며, 중학교 이하 재학/졸업자는 총 2,678명 중 32명(1.2%)에 불과했다.

2. 변수들 간 관계 분석 결과

1)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과 성별과의 관계

미혼자 성별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방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8.311$, $df=5$, $p=.140$ 으로 나타나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방안은 남, 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미혼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든 점과 일 요인을 시간제와 전일제로, 가정 요인을 무자녀, 한 자녀, 두 자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든 연구의 한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분석결과,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 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퇴색하면서, 미혼 남녀들이 성별 분업에 입각해서보다는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양자를 조화롭게 운영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과 교육정도와의 관계

미혼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방안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참조),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은 미혼자의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38.313$, $df=15$, $p=.001$). 구체적으로 어떤 칸(cell)의 실제 빈도와 관측 빈도 값 차이가 전반적 카이 검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생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잔차분석³⁾을 실시했다. 〈표 3〉의 음영으로 표시된 칸의 잔차절대값($|R_{ij}|$)이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 학력 이하의 미혼 남녀는 기대보다 무자녀 전일제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학력의 미혼 남녀는 1자녀

3) 잔차분석을 위한 잔차값은 공식 $R_{ij} = \frac{(O_{ij} - E_{ij})}{\sqrt{E_{ij}}}$ 에 의해 구해지며(O_{ij} : 각 칸의 관측빈도, E_{ij} :

각 칸의 기대빈도). 이 공식을 통해 구해진 표준화 잔차 값(R_{ij})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규분포표에 의해 기각 값이 정해진다. 따라서 $z_{.05} = 1.96$ (양쪽 꼬리 검정)보다 크거나 같은 $|R_{ij}|$ 값을 얻은 경우 유의수준 $\alpha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엄명용, 2007).

시간제 근무를 보다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학력을 소지한 미혼 남녀는 기대보다 무자녀 시간제를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4년제 대학 이상의 미혼 남녀는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에서 두드러지는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은 미혼 남녀의 교육정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뚜렷한 경향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중학교 학력 이하의 소지자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부담을 매우 크게 인식하여 자녀 출산의 여유를 찾지 못하고 전일제로 일하여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큰 반면, 학력이 상승함에 따라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신축성 있게 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조심스런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3>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 교육정도 교차표

양립방안		교육정도						전체
		무자녀 전일제	무자녀 시간제	1자녀 전일제	1자녀 시간제	2자녀 전일제	2자녀 시간제	
중학교 이하	관측빈도	6.0	2.0	2.0	2.0	7.0	13.0	32
	기대빈도	2.4	1.0	6.0	5.2	6.8	10.6	
고등학교	관측빈도	54.0	20.0	98.0	110.0	98.0	167.0	547
	기대빈도	41.7	17.6	102.3	88.2	116.6	180.6	
대학 (4년제 미만)	빈도	38.0	30.0	121.0	96.0	143.0	203.0	631
	기대빈도	48.1	20.3	118.0	101.8	134.5	208.3	
대학 (4년제)이상	빈도	106.0	34.0	280.0	224.0	323.0	501	1468
	기대빈도	111.8	47.1	274.6	236.8	313.0	484.6	
전체빈도		204.0	86.0	501.0	432.0	571.0	884.0	2678

주: $\chi^2 = 38.313$, $df = 15$, $p = .001$

3) 일·가정 양립방안, 성별 및 교육 간 관계

남녀 별, 교육정도 별로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남녀로 나눠 교차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교육정도에 따라 일·가정 양립방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 > 0.05$).

4) 일·가정 양립방안과 성별에 따른 부부 성역할 태도의 변화

조사대상 미혼자들의 성별과 일·가정 양립방안의 종류가 미혼 남녀가 갖고 있는 부부 성역할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부부 성역할 태도 중 “남편은 직장을 갖고 아내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 정도

“남편은 직장을 갖고 아내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찬성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대상 미혼자들의 성별, 일·가정 양립 방안 그리고 이 두 변수의 상호 작용 효과를 독립변수로 한 일변량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남편은 직장을 갖고 아내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개체 간 효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41.140	11	3.740	6.478	.000
절편	11076.958	1	11076.958	19187.711	.000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	27.888	5	5.578	9.661	.000
성별	7.921	1	7.921	13.722	.000
양립방안 x 성별	3.629	5	.726	1.257	.280
오차	1538.490	2665	.577		
합계	21361.000	2677			
수정 합계	1579.629	2676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해 성별과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미혼 여성(n=1,252, 평균=2.65, 표준편차=.784)에 비해 미혼 남성(n=1,425, 평균=2.78, 표준편차=.750)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가정 양립 방안에 따라서도 종속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ukey HSD 사후 다중 비교 결과 자녀 하나(평균=2.88) 또는 둘(평균=2.76)을 두고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미혼자들이 자녀 없이 또는 자녀 하나나 둘을 둔 채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으로 보는 미혼자들에 비해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 이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표 5> 참조).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들은 남편이나 아내에 관계없이 배우자 중 누구든 가족 소득 창출자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어 경제활동이나 가사 활동에 있어 남녀 구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남편은 직장, 아내는 가정일 담당에 대한 찬성도 다중 비교 결과

(I)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J)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한자녀/ 시간제 (평균=2.88)	무자녀/ 전일제(평균=2.54)	.34	.065	.000	.15	.52
	한자녀/ 전일제(평균=2.61)	.26	.050	.000	.12	.41
	두자녀/ 전일제(평균=2.67)	.21	.048	.000	.07	.34
두자녀/ 시간제 (평균=2.76)	무자녀/ 전일제(평균=2.54)	.22	.059	.002	.06	.39
	한자녀/ 전일제(평균=2.61)	.15	.042	.005	.03	.27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즉 두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280$). 즉 모든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 집단에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남자는 직장 일, 여자는 가사 일” 의견에 대해 높은 찬성을 보였다.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과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성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더 높은 찬성을 보여,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을 고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녀에 관계없이 자녀 하나 또는 둘을 두고 시간제로 일하기를 선호하는 미혼자들이 자녀 수 불문하고 전일제로 일하기를 선호하는 미혼자들에 비해 전통적 성역할에 더 많은 지지를 표했다. 미혼 남녀들은 전반적으로 미래의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시간제 일을 선호하는 가운데서도 가정 경제의 최종 책임자는 남성이, 가사의 최종 책임자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맞벌이의 경우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길어 가사노동과 직장 일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실태(통계청, 2009)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전통적인 부부 성역할 태도로 인해 가사노동 시간의 불평등 정도가 큰 사회일수록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 내 평등한 역할 분담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부부 성역할 태도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1=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부터 ‘4=전적으로 찬성한다’까지의 리커트 타입의 척도로 측정된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사대상 미혼자들의 성별, 일·가정 양립방안 그리고 이 두 변수 간 상호 작용 효과를 독립변수로 하여 일변량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 및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한 평균점수는 2.88(N=2,675, 표준편차=.723)로 나타나 중간 점수 2.5를 약간 상회하였다. 대부분의 미혼 남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에 관계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은 경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시간제를 선호하면서 삶을 즐기려는 경향 속에서도 전통적인 성역할(남자는 직장일, 여성은 가정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부부 성역할 태도 중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한 찬성도

“남편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성이($\bar{X}=3.07$, 표준편차=.598) 남성에게($\bar{X}=2.96$, 표준편차=.590)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p=.001$),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3$)(<표 6> 참조). Tukey HSD 방식의 사후분석 수행결과 두 자녀를 두고 전일제의 일·가정 양립 방안을 선호하는 미혼 남녀(평균=3.09)가 한 자녀만 둔 채 전일제로 일·가정 양립 방안을 선호하는 미혼 남녀(평균=2.94)에 비해 남편의 아이돌보는 능력에 대해 약간 높은 믿음을 나타냈다(평균차이=.14, 표준오차=.036, $p=.001$). 두 자녀(또는 그 이상)를 둔 채 전일제로 일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육아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출산을 향상을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 및 양육 분담 능력과 양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성별과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편의 아이 돌보는 능력에 대한 개체 간 효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함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8.062	11	1.642	4.680	.000
절편	13621.194	1	13621.194	38818.747	.000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	6.371	5	1.274	3.631	.003
성별	3.968	1	3.968	11.309	.001
양립방안 x 성별	3.835	5	.767	2.186	.053
오차	934.426	2663	.351		
합계	25250.000	2675			
수정 합계	952.488	2674			

5)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간 관계

미혼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간에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의 내용과 같다.

<표 7>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간 관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Total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거나 모름	
이상적인 가정양립	자녀0_전일제	관측빈도	33.0	94.0	43.0	33.0	203
		기대빈도	47.3	121.5	22.3	11.9	
	자녀0_시간제	관측빈도	18.0	37.0	18.0	11.0	84
		기대빈도	19.6	50.3	9.2	4.9	
	자녀1_전일제	관측빈도	98.0	344.0	39.0	20.0	501
		기대빈도	116.8	299.9	55.0	29.3	
	자녀1_시간제	관측빈도	74.0	254.0	62.0	40.0	430
		기대빈도	100.2	257.4	47.2	25.1	
	자녀2_전일제	관측빈도	166.0	330.0	53.0	20.0	569
		기대빈도	132.7	340.6	62.5	33.3	
자녀2_시간제	관측빈도	233.0	538.0	78.0	32.0	881	
	기대빈도	205.4	527.3	96.8	51.5		
합계			622.0	1597.0	293.0	156.0	2668

주: $\chi^2 = 154.792$, $df = 15$, $p = .000$

<표 7>에서 $\chi^2 = 154.792$, $df = 15$, $p = .000$ 으로 나타나 기대빈도와 관측빈도 간 차이가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느 칸(cell)의 실제빈도와 관측빈도 값 차이가 전반적 카이 검정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발생시켰는지 알아보기 위해 잔차분석을 실시했다. 각 칸의 표준화 잔차값을 산출한 결과 <표 7>의 음영으로 표시된 칸의 잔차 절대값($|R_{ij}|$)이 1.9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없이,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을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혼 남녀와 자녀 하나를 두고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미혼 남녀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문제를 별로 또는 전혀 심각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녀 하나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미혼 남녀는 저출산 문제를 다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자녀를 두고 시간제 일을 원하는 사람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 둘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미혼 남녀는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녀 둘을 두고 시간제로 일하기를 원하는 미혼 남녀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비율이 전일제를 원하는 남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아이를 하나나 둘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출산 문제를 비교적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고자 하는 미혼 남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결과는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향후 여러 자녀의 출산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은 전일제로 일하면서도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겠다는 계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필요성⁴⁾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으로는 산전산후 휴가, 육아보직, 보육정책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국가의 정책적 차원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장수정, 2007). 추후에는 국가의 정책지원 확대도 이어지면서 기업 차원의 “일과 가족 양립 프로그램(work family balance program)”⁵⁾도입이 확대된다면 전일제 근로자들의 일·가족 양립생활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탄력근무제도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제도의 도입과 실제 이용 현황 간 큰 격차가 존재함이 지적되고 있다. 즉, 이러한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업무량, 조직의 문화 등 전반적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Voydanoff, 2005; 홍승아 외, 2009).

5)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작한 “일과 삶의 병행 프로그램”이 한국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기 시작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근로시간의 유연제, 원격근무, 집중 노동일제, 휴식제와 같은 근무형태의 변경을 비롯해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각종 보험제도 그리고 상담과 같은 개인 신상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6)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 및 성별과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여러 가지 저출산 이유들(〈표 8〉 참조)에 대한 응답으로 '1=전혀 찬성하지 않는다'에서 '4=전적으로 찬성한다'까지의 리커트 형태의 척도로 측정된 결과의 변량이 일·가정 양립방안, 성별에 의해 얼마만큼 설명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다양한 저출산 이유들에 대한 미혼 남녀 응답자들의 찬성 정도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저출산 이유에 대한 응답자의 찬성 정도

저출산의 이유	응답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기불황과 실업률 증가	2677	1	4	3.34	.609
취업여성의 증가	2677	1	4	3.20	.671
양육비와 교육비용	2678	1	4	3.43	.622
아동보육시설의 부족	2677	1	4	3.14	.733
주택미련의 어려움	2677	1	4	3.24	.732
이혼 부부의 증가	2677	1	4	2.87	.769
과거보다 편하게 지내려는 의식	2677	1	4	3.09	.687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의식	2677	1	4	3.12	.678

대체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이유들이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저출산의 이유로서 '이혼 부부의 증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동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의식'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부담'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동의를 나타냈다.

(1)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정도

"경기불황과 실업률의 증가"를 저출산의 이유로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성별, 일·가정 양립방안 모두 설명력을 갖지 않았으며, 양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2)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이유로 생각하는 정도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이유로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성별($p = .001$), 일·가정 양립방안($p = .008$)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남성보다(평균=3.15, 표준편차=.667)이 여성이(평균=3.25, 표준편차=.671) '취업여성의 증가'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보는 경향이 높았다. 하지만, 성별과 일·가정 양립방안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참조).

<표 9> 저출산이유를 취업여성의 증가로 돌리는 경향에 대한 개체간 효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6.011	11	1.456	3.265	.000
절편	15541.865	1	15541.865	34863.692	.000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	7.029	5	1.406	3.153	.008
성별	4.700	1	4.700	10.543	.001
양립방안×성별	1.679	5	.336	.753	.584
오차	1188.029	2665	.446		
합계	28550.000	2677			
수정 합계	1204.040	2676			

Tukey HSD 방식의 사후분석 수행결과 자녀 없이 전일제의 일·가정 양립 방안을 선호하는 미혼 남녀(평균=3.32)가 자녀 둘을 두고 시간제의 일·가정 양립 방안을 선호하는 미혼 남녀(평균=3.1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평균차이=.18, 표준오차=.052, $p=.009$). 남녀에 관계없이 여성의 전일제 사회진출을 염두에 둘 때는 자녀를 갖는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함을 엿볼 수 있다.

(3)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부담'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정도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부담'을 저출산의 이유로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성별($p=.011$), 일·가정 양립방안($p=.002$)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별과 일·가정 양립방안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0〉 참조). 미혼남성보다(평균=3.39, 표준편차=.628)는 미혼여성(평균=3.47, 표준편차=.613)이 '양육비와 교육비용의 부담'을 저출산의 이유로 높이 보고 있었다.

Tukey HSD 방식의 사후분석 수행결과 2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는 방식의 일·가정 양립 방안을 선호하는 미혼 남녀(평균=3.50)가 무자녀(평균=3.29, 평균차이=.21, 표준오차=.072, $p=.046$) 또는 한 자녀(평균=3.38, 평균차이=.12, 표준오차=.040, $p=.034$)를 두고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미혼 남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표 11〉 참조). 2자녀를 둔 채 전일제로 일하는 방식의 일·가정 양립방안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무자녀 또는 한 자녀를 둔 채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

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에 비해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저출산 이유로 높이 보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서는 높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때문에 전일제로 일할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저출산 이유를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돌리는 경향에 대한 개체간 효과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수정 모형	13.100	11	1.191	3.103	.000
절편	17559.405	1	17559.405	45758.142	.000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	7.181	5	1.436	3.743	.002
성별	2.458	1	2.458	6.404	.011
양립방안 × 성별	1.472	5	.294	.767	.573
오차	1023.061	2666	.384		
합계	32532.000	2678			
수정 합계	1036.161	2677			

<표 11> 저출산 이유를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보는 것에 대한 다중 비교

(I)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J)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2자녀/ 전일제(평균=3.50)	무자녀/ 시간제(평균=3.29)	.21	.072	.046	.00	.41
	한자녀/ 시간제(평균=3.38)	.12	.040	.034	.01	.23

(4) '아동 보육시설의 부족'을 저출산의 이유로 생각하는 정도

저출산의 이유를 '아동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보는 것에서는 성별,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정도

저출산의 이유로서 '주택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6$). 일·가정 양립 방안과 성별이 상호작용하는지 그 효과를 분석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가정 양립 방안들에 대해 Tukey HSD 방식에 의한 짝 비교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짝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로 <표 1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자녀를 두고 시간제로 일하거나 두 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들이 자녀 없이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저출산의 이유를 주택문제로 약간 더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p 값은 각각 .072와 .077이어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12> 저출산 이유를 주택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는 것에 대한 다중 비교

(I)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J)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자녀/ 시간제(평균=3.30)	무자녀/ 전일제(평균=3.13)	.17	.062	.072	-.01	.35
2자녀/ 전일제(평균=3.29)		.16	.060	.077	-.01	.33

(6) ‘이혼 부부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정도

저출산 이유를 ‘이혼 부부의 증가’로 보는 것에서는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에 따라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1$).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88$). Tukey HSD 방식에 의한 사후분석 수행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평균=2.95)가 2자녀를 두고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평균=2.80)에 비해 저출산 이유를 이혼 부부의 증가 때문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6$).

<표 13> 저출산 이유를 이혼 부부의 증가 때문이라고 보는 것에 대한 다중 비교

(I)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J)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1자녀/ 전일제(평균=2.95)	2자녀/ 시간제(평균=2.80)	.15	.043	.006	.03	.27

(7) ‘과거보다 편하게 지내려는 의식’을 저출산의 이유로 생각하는 정도

저출산 이유를 ‘과거보다 편하게 지내려는 의식’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서는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21$). 성별과 일·가정 양립 방안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ukey HSD 방식에 의한 사후분석 수행 결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 없이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평균=3.20)가 2자녀를 두고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평균=3.04)에 비해 저출산 이유를 '과거보다 편하게 지내려는 의식' 탓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34$). 이 결과는 자신들이 자녀 없이 전일제로 일하는 이유가 과거보다 편하게 지내려는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스스로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14> 저출산 이유로 '과거보다 편하게 지내려는 의식 탓'에 대한 다중 비교

(I)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J)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무자녀/ 전일제(평균=3.20)	2자녀/ 시간제(평균=3.04)	.16	.053	.034	.01	.31

(8)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의식'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정도

저출산 이유를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의식' 탓으로 돌리는 경향에 있어서는 이상적 일·가정 양립방안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과 일·가정 양립 방안 간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ukey HSD 방식에 의한 사후분석 수행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 없이(평균=3.23, $p=.007$) 또는 한 자녀를 두고(평균=3.18, $p=.006$) 전일제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2자녀를 두고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평균=3.05)에 비해 저출산 이유를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의식 때문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각각 $p=.007$, $p=.006$).

<표 15> 저출산 이유로 '독립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의식 때문'에 대한 다중 비교

(I)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J) 이상적 일·가정 양립 방안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무자녀/ 전일제(평균=3.23)	2자녀/ 1자녀/ 시간제(평균=3.05)	.18	.053	.007	.03	.33
1자녀/ 전일제(평균=3.18)	2자녀/ 1자녀/ 시간제(평균=3.05)	.13	.038	.006	.03	.24

저출산의 이유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것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이었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나 그 다음을 차지한 것은 취업여성의 증가였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과중한 양육 부담 때문으로 압축될 수 있다. 특히 출산을 담당해야 할 여성이 남성보다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이유로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은 향후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비롯한 교육비 부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교육비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장혜경, 2005)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문제는 경제발전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의 수보다는 양육의 질에 중점을 두게 되고(Atoh, 1998), 보다 전문화된 인력에 대한 현대사회의 요구를 보다 질 높은 사교육을 통해서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 남녀일수록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이유로 높이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문제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기는 정도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자녀 없이 전일제 일을 선호하는 미혼자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높게 나타난 점은 앞서 지적했듯이 경제적 부담과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저출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V. 논의 및 맺음말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미래의 출산을 담당할 현재의 미혼 남녀들은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서 자녀 2명 이상을 두고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을 두고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선호하여 응답자의 54.3%가 자녀 2명 이상을 두면서 시간제 또

는 전일제의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이것을 매우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미혼 남녀가 23.2%(622명)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미래 출산을 측면에서 해석해 볼 때 향후 저출산 문제가 조금씩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향후 삶의 형태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의 미혼 남녀들은 일에 전적으로 묶여 지내기보다는 시간제 일을 통해 삶을 즐기려는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모든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 집단에서 미혼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남자는 직장 일, 여자는 가사 일” 의견에 대해 높은 찬성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성별 및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높은 찬성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미혼 남녀 간 성역할 태도에 있어 의식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에 따른 규범이나 성평등 의식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즉,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부부 간 공평한 성역할 태도를 강조하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녀가 있고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이라고 여기는 미혼 남녀들이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출산문제의 해결과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반드시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일·가정 양립방안이 사회적으로 지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가사와 양육의 파트너인 남성에게서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여성의 선택은 가장 방어적인 형태, 즉 출산과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박수미·정진국·박선영, 2005) 말해주듯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한국의 일·가정 양립방안 정책은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골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다(홍승아, 2008). 앞으로는 법률적 제도를 넘어 가정생활, 지역사회 및 노동시장에서 폭넓은 일·가정 양립방안이 동시에 실행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서 실제적, 구조적, 문화적인 일·가정 양립 및 안정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생활의 경우, 여성들이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남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남녀역할에 있어서의 균형이 필요하다⁶⁾.

6) 이는 Esping-Anderson(2002)에 의하면 '새로운 젠더계약'이라 명명되는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의 가사분담 및 협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에 적절한 노동시간,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직장에서의 성평등 제도, 자신의 노동여건에 맞는 근로 및 근로 시간의 선택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혼 남녀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든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 및 주택마련의 어려움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총 양육비는 2억 6천 만 원이라는 보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b)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육비와 교육비 절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거문제의 경우도 저출산 문제 해법과 연동하여 미혼 남녀, 신혼 부부나 소가족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건설에 대한 배려가 시급하다. 반면, 기존 연구(공선희, 2010; 양소남·신창식, 2011; 윤소영 외, 2009)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언급되던 아동보육시설의 부족은 이상적인 일·가정 양립방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에 따라 아동보육시설의 역할이 매우 달라질 것이라 추측됨에도 본 연구에서는 그 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가 아직 아동 보육의 경험이 없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과 관련하여 가입기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데이터의 한계로 일 요인 및 가정요인을 비롯하여 일·가정 양립방안에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했으며 특히 일·가정 양립방안의 갈등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분석 자료의 결측치가 너무 많아 많은 사례들이 분석에 사용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패널자료의 차수가 누적되어 차후 종단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출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공선희 (2010) “일-가족양립현실과 출산선택” 《젠더연구》 13: 65-86.
- 김금수 (2003) “여성인력에 대한 직장가정의 양립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10(2): 269-289.
- 김난주·권태희 (2009)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균형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여성연구》 76(1): 43-70.
-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113-137.
- 김선미 (2005) “돈 버는 여자, 애 못 보는 남자: 양육지원 정책제언” 2005 한국 가정관리학회 37차 춘계학술대회 119-141.
- 김소영·김선미·이기영 (2011)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의 양상과 조화로운 양립의가능성 탐색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93-116.
- 김승권·최병호 (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우영 (2007) “여성의 추산과 경제활동참여 결정요인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 연구원 발간자료.
- 김진희·한경혜 (2002)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전이와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0(1): 55-69.
- 김태현 (2005) “가치관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호: 16-24.
- 김혜순 (1982) “한국부인의 이상자녀수 감소변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수미·정진국·박선영 (2005) “젠더문제와 여성의 노동참여: 노동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정윤·장영은 (2011) “유자녀 취업여성의 일-가정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 2011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방영이 (2010)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저출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연구보고서.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85-316.
- 안은진·박다은·한지숙 (2009) “기업의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시행과 기혼 여성근로자의 일-가족 갈등이 자녀출산계획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패널 발표 논문.
- 양소남·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 엄명용 (2007) 사회복지사를 위한 실용 비모수통계 집문당.
-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8) “‘장시간 일해야 한다’는 통념을 버려: 일과 가족생활 양립” 영국의 직장문화 개성사례 2008.9.3. 기사.
- 유계숙 · 한지숙 · 안은지 · 최효진 (2007) “가족친화기업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근로자와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뉴페러다임센터.
- 윤경자 (2010)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한국인구학》 33(2): 137-163.
- 윤소영 · 김하늬 · 고선강 (2009) “맞벌이가정의 일-가정균형을 위한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실시, 활용 및 요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1-21.
- 윤수빈 (2010) “유자녀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은기수 (2009) “한국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3(3): 145-171.
- 이병렬 (2003)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기획논문 12월 국회도서관보.
- 이삼식 (2007)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형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6-140.
- 이삼식 · 신인철 · 조남훈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 조남훈 (2000)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 최효진 · 오영희 · 서문희 · 박세경 · 도세록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석 (2010)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한국인구학》 33(2): 1-31.
- 이인숙 (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 장수정 (2007)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에 대한 쟁점들-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생산을 위한 제언-” 《사회복지정책》 30: 219-238.
- 장지연 (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호: 45-55.
- 장혜경 (2005) “외국의 저출산대응 정책사례” 국회도서관보 42(12): 13-23.
- 정성호 (2010) “초저출산은 지속될 것인가” 《한국인구학》 33(2): 113-136.

- 정영금 (2005)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갈등과 여파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113-122.
- 정혜은 (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51-168.
- 조미환 (1996)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와 가정생활 만족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희금·서지원 (2009) “맞벌이가정의 일-가정균형을 위한 가정생활 영역의 정책적 요구: 자녀돌봄 및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61-81.
- 진미정·정혜은 (2010)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추세연구” 《한국인구학》 33(3): 31-51.
- 차성란 (1998)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6(9): 1-21.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12.
- 최숙희·김정우 (2006) “획기적인 출산을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저출산정책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에 관한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 통계청 (2009)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a)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b) 한국인의 자녀 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 보고서
- 한지숙 (2007) “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지향성이 일-가족갈등 및 촉진과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아 (2008) 한국의 일-가족양립현실과 정책방향 2008 International Symposium in Seoul “Balancing work and family: current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73-90.
- 홍승아·이미화·김영란·유계숙·이영미·이연정·이채로 (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 Atoh, M (1998) “Below-replacement Fertility and Family Policies” Population Association of Japan(ed) *Encyclopedia of Population* Baifukan 924-928.
- Beets, G (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 Birth:Primarily F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 Billari, F.& Kohler., H.P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161-176.
- Booth, A, Amato, P.R (2004) ”Parental gender role nontraditionalism and offspring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865.
- Chin-Chun, Chin-Fen Chang, Ying-Hwa Chang (2004) ”The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Value:A Comparism between Teenagers and Parents and Parents in Taiw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5(4): 523-545.
- Clark S.C. (2001) ”Work culture and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Vacational Behavior* 58: 348-365.
- Esping-Anderson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N. Y.: Oxford University Press.
- Fredricksen-Golden, K.I., & Scharlach, A. E (2001) ”Families and Work: New direc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haus, J.H., Collins, K.M., & Shaw, J.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 510-531.
- Grzywacz, J.G., & Bass, B.L (2003) ”Work, family and mental health: Testing differnet models of work family fi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5: 248-262.
- Hochschild, A (2001) The Second Shift: Working Parents and the Revolution at Home. New York: Viking Press.
- Nomaguchi KM (2006) ”Times of one’s own: employment, leisure, and delayed transitions to motherhood in Japan: 1973-1992”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 703-741 Psychology Annual Conference, Melboorne, Austrailia.
- Voydanoff, P (2005) ”Social Integration, Work-Family Conflict and Facilitation, and Job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666-182.

[2011. 10. 27 접수 | 2011. 12. 22 심사(수정) | 2011. 12. 24 채택]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uture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Couples, and Reasons for Low Birth Rate

Myung-Yong Um · Hyo-soon Kim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such variables as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reasons for low birth rate, and education level, using a sample of 2,678 from the '2009 National Survey for Marriage and Birth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deas about how to support married couples' work-family balance, and how to change gender attitude to promote childbir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ype of ideal work-family balance was different by education level, but not by gender. Low level of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choice of the full time work without a child. Male singles, compared to female singles, preferred the role of a man as a bread winner, and a woman as a house worker. Female singles had the higher level of hope for husband's capability of caring children. This trend was intensified by choice of the full time work with 2 children. Singles who prefer working as a full time worker with 2 children worried more about low birth rate in Korea than singles who prefer working as a part time worker with one or two children. The most frequently cited reason for low birth rate was 'high cost of both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next was 'difficulty in buying a residence, followed by 'increase in the number of career woman'. Female singles who want to work full time with 2 or more children worried more about the burden of child caring and education than male singl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 Work-family compatibility, Gender attitude of a couple,
Reasons for low birth rate**